로컬플러스

익산소방서, 신형 경화학소방차배치

익산소방서는 "최근 대형·특수화되는 화학물질 화재 등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최신형 경화학소방차를 공단119안전센터에 배치, 지난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치한 경화학소방차는 소방용수 2,600 l 와 포소화약제 400 l 가 탑재되어 있어 각종 유류화재 진화에 적응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분말소화약제 140 kg가 탑재되어 있어 물로 소화가 불가능한 특수화재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 중앙지구대, 범죄예방진단

익산경찰서(서장 이동민) 중앙지구대 는 최근 강남역에서 발생한 화장실 살인사건을 계기로 커진 여성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취약 지역 위주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범죄예방진단은 가로등, CCTV, 비상벨 등 방범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주요 건물 등 시정장치가 파손되지는 않았는지,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점검하면서 CCTV 설치에 한계가 있는 사각지대를 파악 비상벨 설치 등 방범진단 시설을 강화하고, 취약개소에 대한 집중순찰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익산=장양원기자

문동신 군산시장, 국가산단 경영자협의회 와 간담회

문동신 군산시장은 2일 (사)군산국가산단 경영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최근 조선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지원책 모색에 나섰다.

주요 건의사항은 기업체 경영자금 지원확대, 산업단지 내 행정서비스 일원화 등 경영 활성화 방안과 신호·과속단속 CCTV 증설, 체육시설 조명 설치 등 기반시설 확충 방안 등이 건의 되었다.

문동신 시장은 "국가산업단지는 군산시 지역경기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오늘 건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수주 절벽 등으로 침체된 국가산단 가동률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대 축제 소음 커 민원 잇따라

고성은 앰프 이용 행사 진행 · 학생들 고성방가 새벽까지 이어져

군산대학교가 주민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늦은 밤까지 고성능 앰프를 이용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소음 피해에 시달린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지난 1일 군산대학교에서는 6개 단과대학 연합축제가 진행됐다.

저녁 7시부터 시작된 이날 행사는 자정이 지나 다음날 1시까지 무려 6시간동안 고성능 앰프를 이용 끊이지 않고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잇따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부터 10여건의 민원이 제기됐으며 민원을 접수한 경찰이 출동해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는 30여분동안 계속됐다.

결국, 경찰의 제지와 계속되는 민원에 앰프 이용은 종료됐으나 학생들의 고성방가는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특히, 이날 소음은 고성능 앰프를 사용해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도 또렷하게 들리고 수 킬로미터 떨어진 옥서면에서도 음악소리가 들릴 정도로 크게 발생해 주민들이 밤잠을 설쳤다.

더욱이 군산대측은 밤 12까지 행사 진행을 허가해주고 민원이 발생해도 총학생회 행사가 아닌 단과대학 행사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거세다.

군산대 인근은 리젠시빌, 롯데인벤스가, 미룡주공 등 6개의 대단위 아파트와 원룸, 주택에 1만 7천여 주민이 자리하고 있는 주거 밀집 지역이다.

주거 밀집 지역을 감안해 대부분의 행사는 밤 10시정도 종료해야 하지만 이날 행사는 늦은 밤까지 계속돼 물의를 빚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군산대에서 각종 행사가 진행될 때마다 수만명의 인근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대학 행사의 특성상 고성능 앰프나 방송차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음이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 있으나 주민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근 주민 박모씨는 "마치 나이트를 럽처럼 6시간 동안이나 끊이지 않고 음악과 고성이 흘러나와 아이들이 잠을 자다 놀라 깨기를 반복했다"며 "행사를 진행하더라도 최소한의 시간은 지켜줘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군산대 관계자는 "총학생회 주관 행사가 아니고 단과대학 단독 행사라서 정확한 행사 일정을 몰랐다"면서 "향후 축제와 행사는 총학생회 및 6개 단과대학 협의를 통해 술 없는 축제와 야간행사를 자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기관 · 단체 대상 우수농산물 체험 활동

이달 중순 손모내기 · 감자캐기 · 하반기 고구마 수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익산시가 친환경농산물 홍보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우수농산물 농촌체험을 운영해 지역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를 높여나가고 있다.

이번 농촌체험 활동은 지역 우수한 농산물을 집중 홍보해 판로확대 기회를 마련하고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상반기는 6월20일까지 지역 내 4개 초등학교, 17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웅포면 일대 친환경단지에서 우수농산물 농촌체험이 열린다.

하반기 10~11월에는 수도권 친환경농산물 홍보 관련 기관·단체(5개소 정도)등이 참여해 연간 총 400여명이 체험활동을 한다.

지난 5월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에서 감자캐기, 손모내기, 목장체험, 치즈만들기 등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친환경쌀 도정시설과 익산원협 학교급식센터를 방문해 친환경농산물이 가공 및 유통되는 과정을 살펴봤다.

이달 중순에는 손모내기와 감자캐기 체험을 통해 흙의 소중함을 알고 수확의 기쁨을 느끼며 친환경쌀 도정시설(명천미곡처리장) 견학을 통해 벼 재배과정과 도정과정을 직접 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하반기에는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고구마캐기, 사과캐기 등 체험활동과 함께 국화축제 관람, 문화유적 답사 등 농촌체험과 문화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가 친환경농산물 홍보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우수농산물 농촌체험을 운영해 지역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를 높여나가고 있다.

익산시, 전통시장 가금 판매업소 일제소독 실시

익산시는 현재 저병원성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하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토종닭 협회와 함께 각종 질병에 취약한 전통시장 가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2일 일제소독을 실시했다.

이날 일제소독은 함열, 황등, 여산, 금마 4개 전통시장의 16개소 가금판매업소가 모든 가금류를 비우고 1차 물청소를 마친 후 공동방제단이 소독차량을 이용해 소독을 했다.

시는 해당 판매업소에 대한 소독실시 여부와 축산관련 개별법령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등을 점검했다.

또 가금 거래상인과 축산차량등록 등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계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안승우 선생 전쟁영웅 이경복 · 백성흠 소위 선정

전북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우실)은 "국가보훈처에서 6월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안승우 선생과 6.25전쟁영웅에 이경복·백성흠 소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독립운동가 안승우 선생은 1865년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나 일제의 국권침탈이 본격화되던 1896년 강원도 원주에서 의병을 일으켰으며 이후 충북 제천으로 옮겨 본격적인 의병활동을 벌였다. 이후 의병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의암 유인석이 의병장으로 추대된 제천의병에서 선생은 전군장을 맡아 선봉에서 의병을 이끌었다. 제천의병은 관군과 일본군이 다수 집결해 있던 군사적 요충지인 충주성을 공략해 장악하고 서울로 북상할 기반을 확보했다. 하지만 관군과 일본군의 집요한 공격으로 전력이 크게 약화되고 보급로도 차단당하자 제천의병은 3월초 충주성을 포기하고 제천으로 돌아왔다.

이후 선생은 의병의 전열을 정비하고 경북 문경의 이강년 의병장 등과 함께 충주·단양 등지에서 일본군 병참기지를 공격, 상당한 전과를 거뒀다.

이달의 6.25전쟁영웅 이경복·백성흠 소위는 한국전쟁 발발 5일째인 1950년 6월 30일, 북한군이 한강철교 도하를 위해 정찰대를 투입했을 때 한조로 L-5연락기에 급조한 폭탄 5발을 싣고 출격, 한강철교가 있는 흑석동 상공으로 향했다.

한강인도교를 발 아래로 보면서 한강철교 방향으로 기수를 돌려 북쪽 어귀를 정찰하던 두 사람은 북한군의 대공사격에 피격됐다. 당시 우리군은 두 사람의 희생으로 미 지상군 참전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도 확보하면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공군본부는 고인들의 전공을 기리며 충무무공훈장을 수여하고 이들은 공군 소위로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의회, 행자부 지방자치법 개정 중단 촉구

군산시의회가 지난 1일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변경 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관할권이 중앙정부에 의해 제약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법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당초 지방의회 의견수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던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지방의 문제에 대한 결정과 책임을 갖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행자부장관의 재량으로 자치단체간의 경계를 결정하는 행위는 경계조정 신청권자의 확대로 해당 지자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경계조정신청이 남용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을 뒤흔들고 자치단체간 갈등을 야기하며 지방분권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사업 대상가구 신청 · 접수

군산시가 '2016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대상가구 신청을 오는 10일까지 받는다.

에너지 효율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주거공간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난방비용 절감과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일반 저소득가구에 대해 가구당 150만원에서 250만원 범위 내에서 단열, 창호, 바닥 시공 및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기초 주거급여대상자 중 자가 가구를 제외한 저소득층 세대로 에너지 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택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 효율사업 개선이 필요한 가구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